



## 外來性(海外)疾病防除의 重要性과 獸醫師의 役割

朴 根 植\*

오늘날의 수의사가 있기까지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18세기에 불란서에서 우역(牛疫)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어 가축전염병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처음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수의국이 설립되고 뒤이어 가축방역을 위한 기술자의 양성을 위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왕실 수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후 100년이 지나서 유럽 각국에서 비슷한 가축의 전염병이 유행하여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불란서와 유사한 수의제도를 설립하여 가축방역에 임하여 왔었다. 그후 수의과대학이나 질병연구기관이 각 나라마다 탄생하여 수의학문의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져 국가방역의 기원을 이루어 왔다.

최근 약 25년 전후에 방역에 대한 주요 과제로서 국제식량기구(FAO)나 국제수역국(OIE) 등의 국제기구에서 외래성 질병방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한편 1980년에 각국의 정부에 긴급방역의 구성과 야외실험실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계획 수립과 동시에 강력한 집행을 힘주어 권고하여 왔다.

외래성질병(exotic diseases)과 해외질병(foreign animal diseases)과는 흔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엄밀하게는 다르다. 시차적(時差的)으로 보면 외래성질병은 국내에 없었던 질병중 이미 잠입 발생하는 질병상태이고 해외질병은 국내에 발생되지 않고 있는 질병으로 외국에서 발

생되고 있는 질병을 뜻한다.

최근 개발도상국도 경제개발을 위해서 앞다투어 기술개발 및 발전계획에 힘쓰고 있어 앞으로 축산분야에서 종축을 비롯한 축산물의 교역량이 증대될 전망이다.

해외질병은 비단 종축을 포함한 축산물에 의해서만 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렇지 않다. 각종 생독백신을 비롯해서 빈번하게 입항하는 항공기나 선박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잔반(殘飯) 등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최근에 네델란드에서(1986년 4월) 항공기의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므로써 아프리카 돼지콜레라(Africa swine fever)가 발생하여 네델란드 양돈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1983년도부터 가금인플루엔자가 펜실바니아와 버지니아주에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하였다(Economic Assessment of the 1983~84 Avian Influenza Eradication Program, Floyd, 1986).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83~84년 사이에 경제적 피해를 생산자측, 소비자측, 정부측 모두 합해서 3억5천만불을 상회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뉴캐슬병이 해외질병으로 잠입하여 큰 피해를 준 일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82년에 닭의 전염성 후두기관염이 외래성질병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매년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한

\*家畜衛生研究所 檢定化學科長・本會 學術弘報委員長

경제적 손실증 간접적인 피해를 제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백신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가 연간 344억원이고 백신을 이용하였을 경우가 약 70억원의 손실로 계산이 된다.

이와 같이 한가지의 해외질병이 잠입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질병의 종류나 대상가축에 따라 다르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매년 주므로서 축산산업의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 특히 최근에 와서 축산물의 경우에도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는 해외질병의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여 이에 관련되는 조직은 물론 실질적 효용가치가 높은 법률의 제정운영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한국에 있어서의 외래성질병방제 현황을 개괄하면 우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보고된 년대별 가축전염병 검색상황을 보면 1950년대 탄저, 돼지콜레라, 뉴캐슬병을 비롯해서 18종의 전염병이 검색되었고 1960년대에는 부루셀라, 돼지의 전염성위장병, 미렉크병 등 20종, 1970년대에는 소의 전염성비기관염, 아나플라즈병, 파보바이러스, 닭의 뇌척수염 등 24종이 검색되었고 1980년부터 1984년까지는 소의 백혈병, 돼지홍막폐염, 닭의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F낭병, 산란저하증 등 13종이 검색되어 총 75종의 전염병이 검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축산이 크게 증식되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동안 37종의 새로운 전염병이 검색되었다. 이는 전염병의 검색기술의 향상에 의한 면도 있으나 종축을 비롯한 축산물의 교역이 크게 증대된 때부터 새로운 전염병이 검색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새로운 전염병이 외래성질병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이들의 외래성질병에 의한 축산분야의 경제적 손실을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이에 더불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는 질병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이 많이 존

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깊게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병은 그 나름대로 강력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발생의 극소화 내지는 박멸해야 함과 동시에 앞으로 잠입할 해외질병방제에 대한 엄격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 가축질병 방역기구는 부분적으로는 보강되어 왔으나 정부수립 당시의 방역기구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의 한 실례를 보면 가축방역과 위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동안 크게 증가한 업무량과 새로운 방역전략을 이용한 제도, 법률, 조직 등의 재검토로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질병의 방제는 정부의 방역조직에만 의존될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서 흩어져 사육되고 있는 가축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수의사는 바로 임상수의사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던 새로운 전염병의 첫 발견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수의사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이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정부의 방역기관에 연락됨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해외질병은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생소한 질병으로 자칫하면 초기발생을 놓일 경우가 있다.

따라서 농수산부와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1984년부터 해외질병방제사업을 적극화하기 위해서 UNDP(국제연합 개발계획) 사업으로 1984~85년까지 예비사업을 거쳐 1986년도와 87년까지 주로 훈련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상수의사는 해외질병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막중한 책임과 국가산업을 우리들의 손으로 보호한다는 긍지로써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중요사업에 대한 홍보와 수의사의 역할을 다하였을 때 수의분야의 존재가치성이 인정되리라 믿는다.